

블랑팡의 메티에 다르 고대 중국의 위대한 미인을 기리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킹 브랜드 블랑팡이 중국의 풍성한 문화와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네 개의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 위치로 구성된 특별한 시리즈를 통해 탁월함과 창의성을 뽐낸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미인을 주제로 한 이 모델들은 블랑팡이 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식 기법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기대하게 만든다.

당대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손꼽히는 네 명의 중국 고대 미인들은 각각 춘추 시대(722-481 BC), 삼국 시대(220-280 AD), 서한 왕조 시대(206 BC-9 AD), 당나라 시대(618-907 AD)로 거슬러 올라가 만날 수 있다. 이 네 명의 중국 미인들은 자연까지 매혹시킨 자신의 탁월한 미모를 뛰어넘어 당시 통치자와 중국 역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명성을 떨쳤다. 그 중 세 명으로 인해 왕국이 약화되었고, 끝내 파국을 맞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블랑팡은 고대 중국의 상징적인 인물 이야기를 재해석해 메티에 다르 워크숍에서 예술적 기법을 채택한 다이얼로 재탄생시켰다. 워크숍은 발레드주의 중심부인 르 브라쉬스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블랑팡 장인들이 고대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샹르베(champlevé) 에나멜, 인그레이빙, 샤쿠도(shakudō), 마케트리, 에나멜 페인팅 등의 예술 기법이 이 유니크 시리즈를 위해 동원되었다. 한편 네 피스의 시계 모두 에나멜 페인팅의 아름다움과 정수를 담아내고 있다.

서시

네 명의 위대한 중국 미인 중 처음 등장하는 이는 서시다. 춘추 시대를 산 그녀는 (현재 저장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월나라 산 속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곳 근처에 있는 하천에서 빨래를 즐겨 하곤 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물 속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었을 정도라고.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블랑팡 장인들은 특히 그랑피 샹르베 에나멜 기법에 초점을 맞췄다. 덕분에 다양한 투명도와 컬러가 풍성하게 어우러지며 멋진 결과물을 탄생시켰다. 다이얼 베이스에 솔리드 골드 모티브를 일일이 손으로 깎아낸 후 에나멜을 칠한다(이것이 이후 컬러풀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 한층 한층 붓으로 덧입히는 에나멜은 그랑피 기법을 적용하는데, 800°C의 높은 온도 화덕에서 구워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블랑팡은 투명한 물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반투명 에나멜로 시냇물을 그렸다. 시계를 기울일 때마다 빛을 반사하며 다이얼에 인그레빙한 잉어가 에나멜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초선

다른 세 명의 미인과 달리 초선은 동한 왕조말과 삼국 시대 주요 사건을 다룬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이다. 서시의 뒤를 이어 아름다움을 뽐낸 초선은 자신의 매력을 그녀의 부모를 죽게 만든 군주를 제거하는데 사용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히 눈부셔서 심지어 달이 놀라 얼굴을 감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초선을 주제로 한 다이얼은 샤푸도와 인그레이빙에 있어서의 블랑팡의 탁월한 손맛을 보여주는 놀라운 여러 기법을 결합했다. 금과 구리의 합금인 샤푸도가 여기에서 다이얼 베이스로 사용되었는데, 로쿠쇼(rokushō)라는 이름의 특별한 액체에 담귀 해질녘 빛깔을 닮은 브라운, 블루, 블랙 사이를 넘나드는 어두운 컬러의 파티나(patina)를 만들어낸다. 무지개 빛깔 머더오브펠 달 주변에서 사색에 잠겨 있는 초선의 모습을 전통적 방식으로 인그레이빙하고 에나멜 처리한 레드 & 옐로 골드 상감 세공이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

왕소군

고대 중국의 세 번째 위대한 미인인 왕소군은 서한 왕조 시대에 등장했다. 그녀는 한나라 원제의 궁녀였고, 그녀의 동의 하에 흉노 왕국의 선우였던 호한야의 배필이 되었다.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한다.

왕소군에게 헌정하는 피스에서는 그녀가 한나라를 떠나는 장면을 담았다. 블랑팡의 예술가들은 그랑피 샹르베 에나멜과 골드 & 머더오브펠 인그레이빙을 결합한 고귀한 우드 마케트리를 사용해 골드 다이얼 위에 눈으로 덮인 산 속 정경을 섬세하게 재현했다. 소재와 컬러가 만들어내는 각기 다른 효과가 손에 비파를 들고 레드 가운을 걸친 당당한 그녀의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을 더욱 부각시킨다.

양귀비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후궁으로 태평성대 시대를 살았다. 그녀는 꽃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출중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가무에도 매우 뛰어났다.

블랑팡은 살짝 취한 듯한 양귀비를 매력적이면서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며 이 특별한 시리즈의 마지막 다이얼을 완성했다. 각각의 컬러 에나멜을 입힐 때마다 여러 번의 굽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을 그리는 표면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랜 여정에는 많은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그림을 그릴 바탕을 만들어내기 위해 골드 다이얼 양면을 에나멜 레이어로 섬세하게 코팅한다(이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후 완벽하게 매끈하고 편평하게 만들기 위해 폴리싱하는 과정을 거친 후 컬러 염료를 칠하게 된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미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 특별한 시리즈에 속한 네 피스는 아름다운 장식을 담아내기에 손색없는 사이즈인 42mm 레드 골드 케이스로 선보인다. 이 섬세한 예술작품은 8일 파워리저브로 유명한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3R3A에 의해 구동된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백 아래에서는 브리지의 코트 드 제네브 모티브나 손으로 깎아낸 챔퍼링 등 다이얼 위 데커레이션만큼이나 정교한 피니싱을 엿볼 수 있다.